

## “세계인이 열광하는 K-콘텐츠, 제대로 느끼면서 보탬 되고파”

크리스티안 부르고스(Christian Burgos) 멕시코 출신 방송인

글 신다혜 객원기자(dhshin131@techm.kr) 사진 송은지 장소협찬 효재네 들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이하 크리스티안)는 한국 예능과 음악에 반해 2014년 12월, 고국 멕시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서 올해로 4번째 봄을 맞은 그는 “중국이 전통적 아시아, 일본이 현대적 아시아라면 한국은 ‘짜릿한 콘텐츠를 만드는 아시아’라고 말했다. 한국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그가 요즘 가장 좋아한다는 공간 ‘효재네 들’에서 한류를 사랑하게 된 계기와 그의 자취를 돌아켜봤다.

### 한국에서 잡은 새로운 기회

크리스티안이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부터다. 독특하게도 ‘무한도전’,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등 보통 외국인들이 꼽는 버라이어티형 예능이 아닌 토크 예능 ‘세바퀴’를 보고 빠졌다고. 당시 멕시코 대학교에서 영상제작과 마케팅을 공부한 그는 한국 예능과 드라마의 영상 편집 방법에 매료됐다. “멕시코에는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도 한데 다 예능용 자막, 효과 등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한국어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푹 빠져 들었죠.”

자막이라도 읽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그는 멕시코국립자체대학교(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한국어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멕시코 북쪽 지역 광산에서 통역 일을 했다. 광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과 내국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회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1년간 모은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스물한 살, 낯선 땅에 온 그는 스페인어 강사로 일하며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방송 출연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2월 한 시즌을 마무리한 MBC에 브리윈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크리스티안의 친구들도 한국 예능에 열광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예능에서 재밌는 순간을 리플레이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패널 별로 돌아가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나 순간마다 나오는 다양한 화면 효과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크리스티안은 ‘비정상회담’을 비롯해 ‘세계의 99 밥상’,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한국식 예능 포맷이 영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콘셉트와 아이디어, 스토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종영한 ‘비정상회담’ 같은 경우 콘셉트가 굉장히 독특했죠.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형식



크리스티안은 한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단순한 소개를 넘어 공감대에 기반을 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멕시코를 비롯해 해외에서 한국 예능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강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탄생한 한류 ‘한글’**

크리스티안은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몰두하고 있는 활동은 퍼포먼스 팀 ‘한글’이다.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에 결성한 그룹 ‘한글’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모여 한국 음악과 한복,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글 팀의 주요 콘텐츠는 한국음악 연주다. 크리스티안은 ‘한글’ 팀에서 건반을 담당하고 있다. 해금을 연주하는 탐 제브넛, 보컬 테리스 브라운과 안야 플로리스 등이 모여 드라마 OST 등 다양한 한국의 음악을 연주한다.

크리스티안은 특히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수단들 중 음악 콘텐츠의 경쟁력을 꼽았다. 음악만큼 한 나라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수단이 없다는 게 크리스티안의 생각이다. 실제로 그가 한국에 빠지게 된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발라드였다.

“우연히 가수 윤종신 씨와 김동률 씨의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를 몰랐는데도 울림이 느껴지는 멜로디가 좋았어요.” 크리스티안은 외국인들에게

아이돌 그룹이 음악뿐만 아니라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디자이너 손에서 새롭게 재탄생한 ‘신(新)한복’도 선보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멤버 힐자 슬라멧과 지노 슬라멧이 트렌디하게 디자인한 한복을 선보이면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멤버들이 모여 한국의 문화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알리고 있다.

크리스티안과 한글 팀 멤버들은 작년 10월, 서울숲에서 처음 공연을 마친 후 한글 팀의 콘셉트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마 ‘추노’ OST를 연주하면서 뒤에 설치한 화면을 통해 주요장면들을 보여줬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음악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 의상들과 배우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죠.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외국인 못지않게 한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크리스티안은 사람들이 한글 팀의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이유로 “모든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글 팀은 현재 인기 있는 K-POP 가요들을 노래하지 않는다. 한국인이거나 대부분 알 수밖에

에 없는 OST들을 연주하며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한류 드라마의 정점을 찍었던 ‘태양의 후예’ OST부터 영화 ‘건축학개론’의 ‘기억의 습작’,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와 ‘마성의 알렉스’를 탄생시켰던 ‘내 이름은 김삼순’의 ‘She is...’까지 한국인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노래들을 연주한다. 1절은 크리스티안이 스페인어로 노래하고 2절은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도 이색적이다. 크리스티안은 한글 팀에서 한국 노래와 더불어 멕시코 음악도 한국어로 전파할 예정이다.

“멕시코 국민노래 ‘베사메무초’나 영화 ‘코코’의 OST ‘리멤버 미(Remember me)’를 한국어로 개사해서 부르는 것 등을 연구하고 있어요.”

한글 팀은 앞으로 지역 아티스트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류를 더 널리 전파하는 새로운 생각**

영화 ‘코코’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제사문화나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한국의 문화와 흡사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크리스티안은 마침 같은 시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 ‘신과함께’를 보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한층 더

깊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공감대에 기반을 둔 문화 교류의 힘을 강조했다. 크리스티안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는 생활양식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 모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흥도 많아서 정서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한국을 ‘동양의 멕시코’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즐겁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처음 왔을 때 난관도 많았다.

“처음에는 ‘눈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설적이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 있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가려한다는 것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았죠.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앞으로 멕시코와 한국을 따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며 문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두유 노?(Do you know)’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멕시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

한글 팀은 각종 축제 및 행사장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OST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3월 ‘관찰아 한국이야 포럼’ 현장 공연 모습(왼쪽) 크리스티안은 케이블 채널 ‘강원TV’에서 강원도의 다양한 놀이와 식문화를 소개했다.(오른쪽)



다. 덕분에 한국에 온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했다고, 프로그램 멤버들과 함께 멕시코로 건너가 설민석 역사가와 함께 나라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안은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다양한 축제를 통한 문화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맹활약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성화 봉송 릴레이도 하고, ‘강원 TV에서 ‘평창올림픽 100배 즐기기’를 테마로 강원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했어요. 강원도 산지 음식을 소개하고 번지점프도 하면서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알렸죠.”

지난해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한 중남미 공무원들에게 ‘한류의 영향’을 주제로 한국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전략과 사례 등의 내용을 강연했다.

크리스티안은 방송, 홍보대사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영상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주멕시코 한국문

화원에서 주최하는 유튜브 채널 ‘한국에 갑시다(Vamos a Corea)’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플레이스와 맛집, 놀이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 특히 외국에서 볼 수 없는 ‘방’ 문화를 외국인들이 꼭 체험해보아야 할 콘텐츠로 소개하고 있다. PC방, 노래방, DVD방, 스크린골프장에 이어 VR방까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 문화가 외국인들을 열광케 한다고, 크리스티안은 “언젠가는 멕시코에도 ‘방’ 콘텐츠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라며 한국의 ‘방’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에 온지 햇수로 4년을 맞은 크리스티안. 아직도 한국에서 신기한 것들이 있냐는 물음에 “여전히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며 “한국의 시원하고 짜릿한 콘텐츠를 제대로 체험하고, 더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❶

지난해 10월에 결성한 퍼포먼스 그룹 ‘한글’은 한국을 사랑하는 각국의 외국인들이 한류를 전파하고자 만든 팀이다. (왼쪽부터)지노 슬라멧(남아공), 테리스 브라운(미국),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탐 제브넷(터키), 안야 플로리스(미국), 힐자 슬라멧(남아공), 올레나 시돌축(우크라이나), 쉬윤페(대만)



# HOT TREND

그 동안의 네트워크는 속도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내는 ‘데이터 전송률(Bit Rate)’에 더 집중해 왔다. 5세대 이동통신은 응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목한다. 찰나의 기다림도 없이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통신 환경이 되면 콘텐츠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